

#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効果에 관한 比較分析<sup>(1)</sup>

—國民所得, 農家, 全國平均都市 및 서울시 家計  
調查資料別 比較와 主要國의 比較를 중심으로—

金 正 年

◀目 次▶	
I. 序 言	III.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의 國際比較
II.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分析	

## I. 序 言

本稿는 인플레이션이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이같은 문제도 實質的으로 다른 많은 關聯局面과 매우 복잡한 因果關係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多元的·循環的인 側面에서 究明되어 나가야 할 것 같다.

여기서는 첫째, 資料의 制約으로 인하여 4가지의 모델——즉, Davis, Houthakker-Taylor, Friedman-Ball, Evans 모델——에 대해 2종류의 計測結果(長期的 經濟構造의 變動을 반영시키기 위해 dummy 變數를 도입한 모델과 도입하지 않은 모델의 結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한다. 둘째, 分析對象은 調查資料別에 의한 家計, 즉 國民所得資料에 의한 家計調查(1954~76年, 1954~79年), 農家家計調查(1960~75年, 1960~78年), 그리고 全國平均都市의 勤勞者家計調查(1964~76年, 1964~78年), 서울시勤勞者家計調查(1964~76年, 1964~78年) 등의 資料에 의한 각각의 인플레이션 效果의 比較分析이다. 끝으로 이들 4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主要 10個國의 資料를 이용하여 몇 가지의 比較分析을 한다.

筆者: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本稿는 拙稿「消費·貯蓄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長洲 蘇眞德博士 停年紀念論文集』,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1979. pp. 89~116)에 이어 계속되는 分析이다. 따라서 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에 관한 理論的 背景과 이의 主要文獻은 前記의 拙稿에서 밝혀두었으므로 本稿에서는 생략하며, 本稿의 Reference에 옮겨 두고자 한다.

## II.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分析

여기서는 이미 밝혀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4가지 統計資料에 의한 4개의 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家計消費行動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波及效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檢討한다. Evans 모델을 除外한 다른 3가지 모델을 適用시킨 結果는 <表 3>~<表 5>, <表 3D>~<表 6D>와 같다.

Evans 모델 以外の 다른 3가지 모델의 結果에 의하면, 2개의 物價變數의 係數의 符號는 國民所得資料와 全國都市家計資料를 사용한 경우의 結果가 거의 같은 傾向으로 나타난다. 한편 農家와 서울市勤勞者家計資料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傾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1> 인플레이션이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모델想定

1. Davis 모델 :

$$(C/Y)_t = f\left[\left(\frac{C^0/PN}{Y/PN}\right)_t, \frac{P_t - P_{t-1}}{P_t}, \Delta\left(\frac{P_t - P_{t-1}}{P_t}\right)\right]$$

2. Houthakker-Taylor 모델 :

$$(C/Y)_t = \left[\frac{(Y/PN)_t - (Y/PN)_{t-1}}{(Y/PN)_t}, \frac{(C/PN)_{t-1}}{(Y/PN)_t}, \frac{(Y/PN)_{t-1}}{(Y/PN)_t}, \frac{P_t - P_{t-1}}{P_t}, \Delta\left(\frac{P_t - P_{t-1}}{P_t}\right)\right]$$

3. Friedman-Ball-Drake 모델 :

$$(C/Y)_t = f\left[\frac{(C/PN)_{t-1}}{(Y/PN)_t}, \frac{P_t - P_{t-1}}{P_t}, \Delta\left(\frac{P_t - P_{t-1}}{P_t}\right)\right]$$

4. Evans 모델 :

$$(C/Y)_t = f\left[\frac{(Y/PN)_t - (Y/PN)_{t-1}}{(Y/PN)_t}, \left(\frac{C/PN}{Y/PN}\right)_{t-1}, \frac{P_t - P_{t-1}}{P_t}, \Delta\left(\frac{P_t - P_{t-1}}{P_t}\right)\right]$$

註 :  $\frac{P_t - P_{t-1}}{P_t} = \frac{\Delta P}{P}$

$$\Delta\left(\frac{P_t - P_{t-1}}{P_t}\right) = \Delta(\Delta P/P)$$

이와 같이 2개의 인플레이션變數를 도입한 3가지 모델에 의한 消費率의 變動을 살펴보면 資料에 따라 각각 特殊한 家計消費行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表 2>는 各 資料에 의한 計測結果인 <表 3>~<表 6> 및 <表 3D>~<表 6D>에서 인플레이션率과 인플레이션上昇率의 係數의 符號를 要約한 것이다.

(1) 國民所得資料와 全國平均都市의 家計調査資料에 의한 인플레이션率( $\Delta P/P$ )과 인플레이션上昇率  $\Delta(\Delta P/P)$ 의 係數는 각각 正值와 負值로 나타난다. (2) 이와 같이 一般적으로

(2) 抽稿, 「消費·貯蓄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1979, p. 103, 參照.

Y: 可處分所得(單位: 10억원)

2가지의 總體的 資料에 의하면, 所得이 增大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消費率에 대해서 플러스效果和 또한 인플레이션上昇率은 마이너스效果로 나타난다.

(2) 農家와 서울市の 家計調査資料를 사용한 4가지의 모델의 結果에 의하면 인플레이션率의 파라메터는 모두 負值이며, 인플레이션上昇率의 파라메터도 正值로 나타난다. (3) 이 같

〈表 2〉 家計資料別 인플레이션의 消費行動에 미치는 效果

	Davis 모델		Houthakker-Taylor 모델		Friedman-Ball-Drake 모델		Evans 모델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Delta P/P \cdot \Delta(\Delta P/P)$
1. 國民所得資料	+, (-)*	-	+	-	+	-	+	-
2. 農家家計資料	-	+	-	+, (-)*	-	+	-	+
3. 全國都市家計資料	+	-	+	-	+	-	-, (+)*	+, (-)*
4. 서울市家計資料	-	+	-, (+)*	+	-	+, (-)*	-(+)*	+(-)*

(註): 本表는 各 모델의 C/Y에 대한 인플레이션變數의 파라메터 符號를 정리한 것이다. ( )\*는 dummy變數의 도입 結果이다. 기타의 것은 兩者의 符號가 일치한 것이다.

〈表 3〉 Davis 모델

資 料 別 (觀測期間)	$c^0/y_t$	$\Delta P/P$	$\Delta(\Delta P/P)$	$R^2$ D.W. S.E.R.
1. 國民所得資料 (1955~76)	$C/Y=0.3131 + 0.6630$ (3.4000) (7.0841)	$+ 0.0225$ (0.4019)	$- 0.0403$ (-0.7453)	0.7413 1.2322 0.0204
2. 農家家計資料 (1960~76)	$C/Y=0.4596 + 0.5097$ (5.9154) (5.6386)	$- 0.5630$ (-2.4669)	$+ 0.2637$ (1.3451)	0.7447 1.7997 0.0505
3. 全國都市家計資料 (1964~76)	$C/Y=0.6740 + 0.2905$ (6.0242) (2.0687)	$+ 0.0382$ (0.1053)	$- 0.1091$ (-0.4182)	0.4122 0.3676 0.0485
4. 서울市家計資料 (1964~76) (俸 給 者)	$C/Y=0.5625 + 0.4622$ (4.8295) (3.1612)	$- 0.4550$ (-1.2574)	$+ 0.2821$ (1.0986)	0.5413 0.4960 0.0455

(註):  $c^0/y_t = (C/PN)^0 / (Y/PN)_t$

C: 民間消費支出(單位: 10억원)

P: 서울消費者物價指數(1975=100)

N: 總人口(單位: 百萬)

$y = Y/PN$ : 1人當 實質可處分所得

$c = C/PN$ : 1人當 實質消費支出

$\Delta y = (Y/PN)_t - (Y/PN)_{t-1}$

$\Delta c = (C/PN)_t - (C/PN)_{t-1}$

$\Delta P = P_t - P_{t-1}$

$c^0$ : 과거의 最高 1人當 實質消費支出

$$\frac{\Delta P}{P} = \frac{P_t - P_{t-1}}{P_t}, \quad \Delta\left(\frac{\Delta P}{P}\right) = \Delta\left(\frac{P_t - P_{t-1}}{P_t}\right)$$

(3) 〈表 6〉의 Evans 모델의 農家家計資料(1960~76年)과 서울市家計調査資料(1964~76年)을 사용한 結果에 의하면,  $\Delta P/P$ 와  $\Delta(\Delta P/P)$ 의 파라메터는 각각 負值와 正值를 취한다. 그러나 〈表 6D〉의 dummy變數를 도입한 結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D〉 Davis모델(dummy 變數導入)

資料別 (觀測期間)	$C^0/y_t$	$\Delta P/P$	$\Delta(\Delta P/P)$	$D$	$R^2$ D.W. S.E.R.	
1. 國民所得 資料 (1954~79)	$C/Y=0.6389$ (6.9842)	$+ 0.3496$ (3.8138)	$- 0.0065$ (-0.0685)	$- 0.0551$ (-0.6235)	$- 0.0068$ (-0.3526)	0.6109 1.0820 0.0342
2. 農家家計 資料 (1960~78)	$C/Y=0.5882$ (7.3966)	$+ 0.3300$ (3.2970)	$- 0.2465$ (-1.0896)	$+ 0.0489$ (0.2760)	$- 0.0637$ (-2.0571)	0.8364 2.1875 0.0394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8)	$C/Y=0.7655$ (12.6363)	$+ 0.2094$ (2.8145)	$+ 0.1874$ (1.0865)	$- 0.1349$ (-1.0751)	$- 0.0834$ (-5.6248)	0.8999 1.2363 0.0253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8)	$C/Y=0.7628$ (16.6598)	$+ 0.2469$ (4.2349)	$- 0.1025$ (-0.6959)	$+ 0.0507$ (0.4904)	$- 0.0858$ (-7.2015)	0.9158 2.4214 0.0203

(註) :  $D$ =dummy 變數

1. 1954~63=0, 1964~79=1
2. 1960~71=0, 1972~78=1
3. 1964~70=0, 1971~78=1
4. 1964~70=0, 1971~78=1

은 變動傾向을 나타내는 중요한 原因은, 주로 農家와 서울市俸給者家計의 消費率이 인플레이션率에 대해 萎縮的인 行動을 취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인플레이션上昇率에 대해서는 다소 積極的인 消費行動을 취하고 있다.

(3) Davis모델에 대해 4가지의 家計資料를 適用시킨 結果에 의하면 1人當表示의 過去最高消費基準의 消費率( $C^0/PN/Y/PN$ )은 1955~76년에 비해 1954~79년에 크게 低下한다. 消費率의 低下現象은 주로 長期間에 걸친 所得增大에 기인한 것이며, 家計消費支出規模의 縮少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4) Houthakker-Taylor 모델의 結果에 의하면 消費率과 對應시킨 3가지 變數,  $(Y/PN)_t$ ,  $-(Y/PN)_{t-1}/(Y/PN)_t$ ,  $(C/PN)_{t-1}/(Y/PN)_t$ 와  $(Y/PN)_{t-1}/(Y/PN)_t$ 의 파라메터는 대체로 正常的인 傾向值로 나타난다.

〈表 4〉의 國民所得資料와 全國平均都市家計調查資料를 사용한 경우, 2개의 物價變數  $\Delta P/P$ 와  $\Delta(\Delta P/P)$ 의 파라메터는 각각 正值와 負值로 나타나나 農家家計調查資料와 서울市의 家計調查資料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負值와 正值로 나타난다.

한편, 〈表 4D〉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觀測期間을 1978年 및 1979年으로 延長시키고, 또한 構造的 變化를 고려하기 위해 dummy變數를 도입한 結果에 의하면, 國民所得資料와 全國平均都市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한 경우에 2개의 物價變數의 파라메터도 위에서 본 〈表 4〉의 結果와 거의 같다. 그러나 이 때 農家家計調查資料를 사용할 경우의  $\Delta P/P$ 와  $\Delta(\Delta P/P)$ 의 파라

〈表 4〉 Houthakker-Taylor 모델

資 料 別 (觀 測 期 間)	$4y/y$	$c_{t-1}/y_t$	$y_{t-1}/y_t$	$4P/P$	$A(4P/P)$	$R^2$ D.W. S.E.R.
1. 國民所得 資 料 (1954~76)	$C/Y=9.0964$ (0.7267)	$- 8.4735$ (-0.6741)	$+ 0.4871$ (2.5947)	$- 8.5865$ (-0.6860)	$+ 0.0456$ (0.4338)	$- 0.0408$ (-0.4714)
2. 農家家計 資 料 (1960~76)	$C/Y=0.5137$ (0.1330)	$- 0.0566$ (-0.0148)	$+ 0.7424$ (3.5457)	$- 0.2561$ (-0.0650)	$+ 0.3384$ (-1.0256)	$+ 0.0826$ (0.3576)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6)	$C/Y=-6.3611$ (-3.5155)	$- 7.3489$ (-3.9621)	$+ 0.2275$ (2.4703)	$+ 6.9854$ (3.9331)	$+ 0.7751$ (2.9474)	$- 0.4548$ (-2.3399)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6) (傳給者)	$C/Y=0.8099$ (4.4602)	$- 0.0520$ (-0.2415)	$+ 1.0045$ (5.2568)	$- 0.7664$ (-2.9685)	$- 0.4153$ (-1.6637)	$+ 0.2901$ (1.5483)

(註) :  $4y/y = (Y/PN)_t - (Y/PN)_{t-1} / (Y/PN)_t$        $c_{t-1}/y_t = (C/PN)_{t-1} / (Y/PN)_t$        $y_{t-1}/y_t = (Y/PN)_{t-1} / (Y/PN)_t$

〈表 4D〉 Houthakker-Taylor 모델 (dummy 變數導入)

資 料 別 (觀 測 期 間)	$4y/y$	$c_{t-1}/y_t$	$y_{t-1}/y_t$	$4P/P$	$A(4P/P)$	$D$	$R^2$ D.W. S.E.R.
1. 國民所得 資 料 (1954~79)	$C/Y=0.3637$ (1.7483)	$+ 0.3076$ (1.4077)	$+ 0.6559$ (3.1636)	$- 0.0169$ (-0.6155)	$+ 0.0384$ (0.4033)	$- 0.0605$ (-0.6843)	$- 0.0128$ (-0.6901)
2. 農家家計 資 料 (1961~78)	$C/Y=3.7588$ (0.2927)	$- 0.3759$ (-0.2950)	$+ 0.0946$ (0.5112)	$- 0.3751$ (-2.1230)	$- 0.1024$ (-0.5582)	$- 0.1204$ (-0.9127)	$- 0.1284$ (-4.2116)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8)	$C/Y=0.2565$ (1.3785)	$+ 0.6077$ (2.9936)	$+ 0.8479$ (4.1846)	$- 0.1156$ (-1.0445)	$+ 0.0509$ (0.3698)	$- 0.0154$ (-0.1439)	$- 0.0267$ (-1.2780)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8)	$C/Y=-0.0198$ (-0.4549)	$+ 0.7424$ (5.7718)	$+ 1.3579$ (5.1155)	$- 0.3328$ (-1.4026)	$+ 0.1037$ (0.2939)	$+ 0.1113$ (0.4592)	$+ 0.0198$ (0.4648)

(註) : dummy 變數는 前記의 〈表 3D〉와 同一한.

〈表 5〉Friedman-Ball-Drake 모델

資料別 (觀測期間)	$c_{t-1}/y_t$	$\Delta P/P$	$\Delta(\Delta P/P)$	$R^2$ D.W. S.E.R.
1. 國民所得 資料 (1955~76)	$C/Y=0.6169 + 0.3815 + 0.0032 - 0.0334$ (6.0659) (3.4294) (0.0379) (-0.4072)			0.4074 1.4390 0.0309
2. 農家家計 資料 (1960~76)	$C/Y=0.3987 + 0.6066 - 0.5374 + 0.1808$ (4.6524) (5.7784) (-2.3916) (0.9461)			0.7535 2.3397 0.0496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6)	$C/Y=0.7792 + 0.1332 + 0.3223 - 0.2220$ (6.8941) (1.0661) (0.8763) (-0.7672)			0.2299 0.2529 0.0555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6) (俸給者)	$C/Y=0.5800 + 0.4326 - 0.3054 + 0.0993$ (4.5663) (2.7458) (-0.8297) (0.3780)			0.4732 0.3371 0.0487

〈表 5D〉Friedman-Ball-Drake 모델 (dummy 變數導入)

資料別 (觀測期間)	$c_{t-1}/y_t$	$\Delta P/P$	$\Delta(\Delta P/P)$	D	$R^2$ D.W. S.E.R.
1. 國民所得 資料 (1954~79)	$C/Y=0.5765 + 0.4293 + 0.0148 - 0.0545 - 0.0178$ (5.3075) (3.7766) (0.1569) (-0.6139) (-1.0207)				0.6077 1.4331 0.0344
2. 農家家計 資料 (1960~78)	$C/Y=0.5449 + 0.4008 - 0.2451 + 0.0057 - 0.0639$ (6.4203) (3.5885) (-1.1376) (0.0347) (-2.2075)				0.8491 2.5893 0.0378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8)	$C/Y=0.7719 + 0.2034 + 0.1938 - 0.1653 - 0.0845$ (12.1755) (2.5784) (1.0749) (-1.3076) (-5.5064)				0.8922 1.2241 0.0262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8)	$C/Y=0.7711 + 0.2348 - 0.0697 - 0.0247 - 0.0802$ (17.2271) (4.1575) (-0.4800) (-0.2599) (-6.4101)				0.9138 2.8284 0.0211

(註) : D=dummy變數

1. 1954~63=0, 1964~79=1
2. 1960~71=0, 1972~78=1
3. 1964~70=0, 1971~78=1
4. 1964~70=0, 1971~78=1

메터는 모두 負値를 취하여, 서울市家計調査資料를 사용할 경우에는 2개의 파라메터는 모두 正値의 값을 취한다.

이와 같이 2개의 인플레이션變數의 消費率에 미치는 影響은 國民所得資料에 의한 總體의 平均家計와 全國平均都市의 勤勞者家計에서는 동일한 類型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農家家計와 서울市勤勞者家計의 消費率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影響도 동일한 類型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Davis 모델과 Friedman-Ball-Drake 모델에서도 동일한 結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物價上昇에 대한 消費率의 變動은 4종류의 資料別 家計에서 본다면

〈表 6〉 Evans 모델

資料別 (觀測期間)	$\Delta y/y$	$(c/y)_{t-1}$	$\Delta P/P$	$\Delta(\Delta P/P)$	$R^2$ D.W. S.E.R.	
1. 國民所得 資料 (1955~76)	$C/Y=0.4425$ (2.2331)	$-0.3508$ (-2.8127)	$+0.5598$ (2.8512)	$+0.0195$ (0.2323)	$-0.0569$ (-0.7036)	0.4517 1.8818 0.0306
2. 農家家計 資料 (1960~76)	$C/Y=0.3720$ (2.4032)	$-0.4303$ (-3.2782)	$+0.6189$ (3.9360)	$-0.4246$ (-1.3530)	$+0.1144$ (0.5100)	0.7565 2.7093 0.0513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6)	$C/Y=0.0207$ (0.2072)	$-0.1147$ (-1.9714)	$+0.9821$ (8.8959)	$-0.0797$ (-0.5663)	$+0.1529$ (1.4064)	0.9207 1.7365 0.0189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6) (俸給者)	$C/Y=0.0331$ (0.2084)	$-0.2390$ (-1.9929)	$+0.9983$ (5.6831)	$-0.3187$ (-1.4255)	$+0.2397$ (1.3883)	0.8151 1.9187 0.0306

〈表 6D〉 Evans 모델 (dummy 變數導入)

資料別 (觀測期間)	$\Delta y/y$	$(c/y)_{t-1}$	$\Delta P/P$	$\Delta(\Delta P/P)$	$D$	$R^2$ D.W. S.E.R.	
1. 國民所得 資料 (1954~79)	$C/Y=0.3802$ (2.0828)	$-0.3428$ (-2.9567)	$+0.6225$ (3.3880)	$+0.0356$ (0.3863)	$-0.0598$ (-0.6979)	$-0.0100$ (-0.5696)	0.6533 2.0322 0.0331
2. 農家家計 資料 (1960~78)	$C/Y=0.6656$ (2.3265)	$-0.3523$ (-3.2634)	$+0.2677$ (0.8400)	$-0.2982$ (-1.1652)	$+0.0367$ (0.1040)	$-0.0786$ (-1.4856)	0.8508 2.4585 0.0391
3. 全國都市 家計資料 (1964~78)	$C/Y=0.2796$ (1.8145)	$-0.1181$ (-2.0205)	$+0.6996$ (4.4186)	$+0.1263$ (1.0166)	$-0.0386$ (-0.4090)	$-0.0340$ (-1.8805)	0.9540 1.4320 0.0181
4. 서울市 家計資料 (1964~78)	$C/Y=0.3255$ (1.9036)	$-0.1208$ (-2.2348)	$+0.6580$ (3.9875)	$+0.0842$ (0.6712)	$-0.0017$ (-0.0231)	$-0.0417$ (-2.4687)	0.9546 2.9222 0.0162

2가지 影響의 類型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이 消費率에 미치는 影響分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農家家計와 서울市勤勞者家計의 消費行動은 인플레이션率에 대해서 消極的인 것으로 나타나나, 인플레이션 上昇率에 대해서 다소 積極的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위에서 본 農家家計와 서울市勤勞者家計에서 인플레이션 上昇率  $\Delta(\Delta P/P)$ 의 파라메터가 왜 消費率에 대해 正值로 나타나는가의 解釋問題이다. 70年代 이후의 高度成長期에 있어서의 農家와 서울市的 家計의 1人當實質可處分所得은 全國平均家計와 全國平均都市家計에 비해 급격하게 增大하였고, 또한 이와 동시에 平均消費性向은 顯著하게 低下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같은 狀態에서의 消費行動은 인플레이션率에 대한 影響과는 전연 다른 것이므로 인플레이션上昇率  $\Delta(\Delta P/P)$ 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의 心理的 效果를 誘發시키기 쉽다는 사실을 想定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假定 아래서는 인플레이션上昇率의 파라메터가 正值를 취하는 傾向은 결국 時間的으로 長期間의 인플레이션心理度와 밀접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Ⅲ.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의 國際比較<sup>(4)</sup>

本章은 主要 10個國의 時系別資料(1962~79年)을 이용하여 4가지의 모델, Davis, Evans, Houthakker-Taylor 그리고 Friedman-Ball-Drake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의 家計消費行動에 미치는 影響의 國際比較分析이다.

國際別 資料를 사용한 4개의 모델分析에 의하면, 대체로 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의 影響은 3가지의 類型으로 나타난다.<sup>(5)</sup>

2가지의 物價變數,  $\Delta P/P$ 와  $\Delta(\Delta P/P)$ 의 파라메터符號는 각 모델別로  $(-, +)$ ,  $(-, -)$ ,  $(+, -)$ 의 값을 취한다. 이 모델別의 인플레이션의 效果를 比較해 본다면, Houthakker-Taylor 모델을 除外한 나머지 3개의 모델에서의 物價變數의 파라메터符號는 몇 가지의 例外(가령, 캐나다, 美國 및 自由中國 등)는 있으나, 대체로 동일한 傾向과 變動類型으로 나타난다. 즉, 各國의 인플레이션率과 인플레이션上昇率이 消費率에 미치는 影響의 類型이 동일한 傾向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같은 各國의 消費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의 影響類型에 관해서는 금후의 보다 細部的이고 具體的인 究明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本章에서 논의한 인플레이션 影響에 관한 1次的 分析結果를 살펴본다면, (i)  $\Delta P/P$ 와  $\Delta(\Delta P/P)$ 의 變化에 대해서 消極的인 行動과, (ii)  $\Delta P/P$ 에 대해서 消極的인 行動과  $\Delta(\Delta P/P)$ 에 대해서 積極的인 行動, 그리고 (iii)  $\Delta P/P$ 에 대해서 積極的인 行動과  $\Delta(\Delta P/P)$ 에 대해서, 消極的인 行動 등의 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4) 本稿의 國際比較分析은 傾向把握을 위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란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課題는 金후 國際別의 與件變化 등을 충분히 고려한 側面에서 比較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5) 이러한 國際比較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델에 의한 一括的인 分析은 原則的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金후 各國의 보다 細密한 關聯資料를 이용한 分析이 필요하다.



〈表 7〉인플레이션이 消費行動에 미치는 影響類型(I)

(1962~79年)

影響類型	Davis 모델			Houthakker-Taylor 모델		
	$\Delta P/P$	$\Delta(\Delta P/P)$	國 別	$\Delta P/P$	$\Delta(\Delta P/P)$	國 別
類型 I (-, +)	-0.1159+0.1060		U. K.	-0.1365+0.0148		U. K.
	-0.5261+0.1936		Japan	-0.4660+0.0827		Japan
	-0.2356+0.0235		Canada			
	-0.4068+0.1866		Taiwan			
類型 II (-, -)	-0.1714-0.0658		U. S. A.	-0.1334-0.0527		Canada
	-0.3121-0.1980		W. Germany	-0.2912-0.2126		W. Germany
	-0.1802-0.0470		Brazil	-0.0905-0.1850		Brazil
	-0.0473-0.0059		Phillippines			
	-0.0065-0.0551		Korea(*)			
類型 III (+, -)	+0.2861-0.3317		France	+0.2730-0.2279		France
	+0.0638-0.1890		Australia	+0.0292-0.1207		U. S. A.
	+0.0225-0.0403		Korea(**)	+0.0507-0.1592		Australia
				+0.2676-0.1370		Taiwan
				+0.0384-0.0605		Korea(*)

資料 : IMF, IFS, May 1978, June 1980.

(註) : (\*) 1954~79년에 의한 dummy 變數導入의 結果

(\*\*) 1955~76년에 의한 結果

〈表 7〉인플레이션이 消費行動에 미치는 影響類型(II)

(1962~79年)

影響類型	Friedman-Ball-Drake 모델			Evans 모델		
	$\Delta P/P$	$\Delta(\Delta P/P)$	國 別	$\Delta P/P$	$\Delta(\Delta P/P)$	國 別
類型 I (-, +)	-0.1125+0.0778		U. K.	-0.0956+0.0236		U. K.
	-0.4432+0.0881		Japan	-0.3818+0.0442		Japan
	-0.2437+0.0313		Canada			
	-0.3191+0.0704		Taiwan			
類型 II (-, -)	-0.0324-0.2312		U. S. A.	-0.3245-0.1888		W. Germany
	-0.3118-0.1981		W. Germany	-0.1351-0.0517		Canada
	-0.1707-0.0569		Brazil	-0.1565-0.0582		Brazil
	-0.0090-0.0246		Phillippines	-0.0094-0.0207		Phillippines
類型 III (+, -)	+0.2862-0.3317		France	+6.1468-6.0237		U. S. A.
	+0.0536-0.2463		Australia	+0.2550-0.2275		France
	+0.0148-0.0545		Korea(*)	+0.0705-0.1739		Australia
				+3.2246-1.2079		Taiwan
				+0.0356-0.0598		Korea(*)

〈表 8〉物價變數의 一般的 變動傾向

(1962~79年)

影響類型	國 別	C/Y	$\Delta P/P$	$\Delta(\Delta P/P)$
類型 I (-, +)	Japan Canada U. K. Taiwan	下降的	安定的 (1974年前後的 peak를 除外시킴)	安定的 (1974~75년의 peak를 除外시킴)
類型 II (-, -)	U. S. A. W. Germany Brazil Phillippines	一定傾向	安定的 (1974年前後的 peak를 除外시킴)	安定的 (1974~75년의 peak를 除外시킴)
類型 III (+, -)	France Australia Korea	下降的	上昇的	安定的 (1975년의 peak 를 除外시킴)

(註) : 各 類型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類型 I : 이 類型의 國家들은 인플레이率의 上昇과 더불어 C/Y의 急速한 低下傾向을 나타낸다.

類型 II : U.S.A.와 Brazil은 인플레이率의 上昇과 더불어 C/Y의 變動傾向이 不明確하며 Germany와 Phillippines은 인플레이率의 上昇과 더불어 C/Y가 서서히 低下되는 傾向을 나타낸다.

類型 III : 이 類型의 國家들은 인플레이率의 上昇과 더불어 C/Y의 變動은 서서히 低下된다.

### 參 考 文 獻

- 1) 拙稿, 「消費·貯蓄行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效果」, 『長洲 蘇眞德博士 停年記念論文 集』,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1979, pp. 89~116.
- 2) J.W. Freebairn, "Inflation and Stability of the Household Consumption-Savings Function," *The Economic Record*, June 1977, p.199.
- 3) W. H. Branson and A. K. Klevorick, "Money Illusion and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No. 59, 1969, pp. 624~626.
- 4) S. W. Burch and D. Werneke, "The Stock of Consumer Durables, Inflation and Personal Saving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Personal Saving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 57, 1975, pp. 142~144.
- 5) G. M. Davy, "A Consumption Function with Money Illusion: The Australian Experience,"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No. 6, 1975, pp. 23~25.
- 6) J. Friend and C. Lieberman, "Short Run Asset Effects on Household Saving and Consumption; The Cross-Section Evi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1975, pp. 624~626.
- 7) G. Ackley, *Macroeconomic Theory*, 1961, pp. 293~294.
- 8) E. Mueller, "Consumer Reaction to Infl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 LXXII, May 1959, No. 2, pp. 246~249.
- 9) J. S. Duesenberry, "Income-Consumption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Essays in Honours of A.H. Hansen Income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1948, pp. 60~61.
  - 10) B. Strumpel, "Saving Behavior in Wester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No. 2, May 1975, p. 214.
  - 11) G. Katona, *Psychological Analysis of Economic Behavior*, 1951, pp. 165~167.
  - 12) F. Modigliani and R. 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o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K.K. Urihara, Editd, *Post-Keynsian-Economics*, 1955, p. 401.
  - 13) R. Ferber,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2, March 1962, No. 1, pp. 38~40.
  - 14) J.S. Duesenberry, *Business Cycles and Economic Growth*, 1958, p. 176.
  - 15) B. Singh and A. Ullah, "The Consumption Function: The Permanent Income versus The Habit Persistence Hypothe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VIII, Feb. 1976, No. 1, p. 79.
  - 16) G. Katona and E. Mueller, *Consumer Expectations 1953~1956*, p. 110.
  - 17) F. T. Juster and L.D. Taylor, "Personal Savings in the Postwar World: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No. 2, May 1975, p. 205.
  - 18) W. H. Branson and A.K. Klevorick, "Money Illusion and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 5, Dec. 1969, p. 832.
  - 19) C. S. Tsao, "The Linearity Property in the Consumption Function: Estimation, Tests and Some Related Resul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VII, May 1975, No. 2, p. 214.
  - 20) A. Ando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1, March 1963, p. 56.
  - 21) H.G. Johnson, "Monetary Theory and Poli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2. (久武雅夫編「現代の経済學」1, 高山晟譯, p. 131.)
  - 22) H. S. Houthakker, "The Present State of Consumption Theory", *Econometrica*, vol.

29, No. 4, Oct. 1961, pp. 712~713.

- 23) K. B. Bhatia, "Capital Gains and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5, 1972, p. 868, p. 872.
- 24) M.R. Darby, "Postwar U.S. Consumption, Consumer Expenditures, and Saving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No.2, May 1975, p. 218, p. 222.
- 25) A. H. Hansen, *Income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1948, p. 56.
- 26) B. Sexauer, "The Role of Habits and Stocks in Consumer Expendit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CI, Feb. 1977, No. 1, pp. 141~142.
- 27) M. K. Evans, "The Importance of Wealth in the Consumption Func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1967, pp. 340~341, p. 344.
- 28) T.E. Davis, "The Consumption Function as a Tool Predic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4, Aug. 1952. pp. 270~277.

附表 1. Davis 모델의 國際比較

(1962~79年)

國 別	$C/Y$	$c^0/y^0$	$AP/A$	$\Delta(AP/P)$	$D$	$R^2$ D.W. S.E.R.
1. U. S. A.	$C/Y=0.3241$ (3.6539)	+ 0.5475 (3.9544)	- 0.1714 (-1.0431)	- 0.0658 (-0.4432)	+ 0.0112 (2.1021)	0.8456 0.8873 0.0064
2. U. K.	$C/Y=0.6693$ (8.0500)	+ 0.0391 (0.3121)	- 0.1159 (-1.0125)	+ 0.1060 (1.0347)	- 0.0096 (-0.9949)	0.4563 0.6782 0.0120
3. Japan	$C/Y=0.2726$ (3.9227)	+ 0.7104 (6.7598)	- 0.5261 (-4.8193)	+ 0.1936 (1.8228)	- 0.0172 (-2.3228)	0.9093 2.0638 0.0132
4. W. Germany	$C/Y=0.3730$ (5.0391)	+ 0.4284 (3.4308)	- 0.3121 (-2.2369)	- 0.1980 (-0.9896)	- 0.0001 (-0.0102)	0.8162 2.2262 0.0057
5. Canada	$C/Y=0.2902$ (4.4804)	+ 0.6093 (6.4653)	- 0.2356 (-2.3924)	+ 0.0235 (0.1558)	- 0.0051 (-0.8690)	0.9397 1.1794 0.0073
6. France	$C/Y=0.5893$ (13.3292)	+ 0.1202 (1.7058)	+ 0.2861 (2.4722)	- 0.3317 (-2.7952)	- 0.0113 (-1.9703)	0.5866 1.9078 0.0072
7. Australia	$C/Y=0.4309$ (10.4470)	+ 0.3329 (4.9881)	+ 0.0638 (0.9110)	- 0.1890 (-1.9395)	- 0.0125 (-2.1900)	0.7709 1.5288 0.0073
8. Brazil	$C/Y=0.6293$ (1.7520)	+ 0.2066 (0.3523)	- 0.1802 (-0.6806)	- 0.0470 (-0.1580)	- 0.0360 (-0.9273)	0.0978 1.2846 0.0679
9. Philippines	$C/Y=0.3142$ (6.5008)	+ 0.6572 (11.6894)	- 0.0473 (-0.6122)	- 0.0059 (-0.1147)	- 0.0434 (-4.4759)	0.9838 2.4773 0.0101
10. Taiwan	$C/Y=0.0049$ (0.3346)	+ 1.0545 (39.0828)	- 0.4068 (-3.7412)	+ 0.1866 (2.4155)	+ 0.0169 (1.4744)	0.9921 2.0456 0.0210

附表 2. Houthakker-Taylor 모멘트의 國際比較 (1962~79年)

國 別	$\Delta y/y$	$c_{t-1}/y_t$	$y_{t-1}/y_t$	$\Delta P/P$	$A(\Delta P/P)$	D	$R^2$	D.W.	S.E.R.
1. U. S. A.	$C/Y = 0.4451$ (9.0359)	$-0.0156$ (-0.3687)	$+0.9062$ (12.0198)	$-0.3753$ (-7.4270)	$+0.0292$ (0.4312)	$-0.1207$ (-1.7841)	$+0.0015$ (0.6303)	0.9763 2.1766 0.0027	
2. U. K.	$C/Y = -0.6715$ (-0.6218)	$+1.2773$ (1.1710)	$+0.7717$ (3.0240)	$+0.8327$ (0.7134)	$-0.1365$ (-1.8388)	$+0.0148$ (0.1866)	$+0.0063$ (0.8518)	0.7952 2.5238 0.0080	
3. Japan	$C/Y = -0.0001$ (-0.0002)	$+0.3393$ (3.4768)	$+0.5596$ (1.9823)	$+0.3714$ (1.8364)	$-0.4660$ (-2.8638)	$+0.0827$ (0.6848)	$-0.0227$ (-1.8332)	0.9953 1.7756 0.0142	
4. W. Germany	$C/Y = 0.0001$ (0.0004)	$+0.3755$ (4.9176)	$+0.4401$ (1.3726)	$+0.4648$ (1.7789)	$-0.2912$ (-0.9461)	$-0.2126$ (-0.8771)	$-0.0001$ (-0.0137)	0.9988 2.5169 0.0076	
5. Canada	$C/Y = 0.9697$ (0.1599)	$-0.6167$ (-0.1009)	$+0.7646$ (5.6293)	$-0.7936$ (-0.1307)	$-0.1334$ (-1.0548)	$-0.0527$ (-0.3090)	$-0.0024$ (-0.3769)	0.9442 1.5201 0.0071	
6. France	$C/Y = -0.0001$ (-0.0005)	$+0.6194$ (12.6501)	$+0.4516$ (1.8057)	$+0.3609$ (2.1124)	$+0.2730$ (2.0691)	$-0.2279$ (-1.5640)	$-0.0084$ (-1.2047)	0.9987 2.5249 0.0072	
7. Australia	$C/Y = 1.8475$ (1.3103)	$-1.3179$ (-0.9406)	$+0.6174$ (4.0175)	$-1.6030$ (-1.1342)	$+0.0507$ (0.6784)	$-0.1592$ (-1.5709)	$-0.0037$ (-0.5407)	0.8091 2.6769 0.0072	
8. Brazil	$C/Y = -0.0002$ (-0.0003)	$+0.4485$ (1.0601)	$-0.4797$ (-0.4453)	$+1.0898$ (1.4548)	$-0.0905$ (-0.3784)	$-0.1850$ (-0.5247)	$-0.0146$ (0.3588)	0.8928 2.0014 0.0718	
9. Taiwan	$C/Y = -0.0002$ (-0.2570)	$+0.5836$ (3.9069)	$+0.9565$ (6.7245)	$+0.0123$ (0.1220)	$+0.2676$ (1.4687)	$-0.1370$ (-1.8622)	$-0.0127$ (-0.9950)	0.9973 2.5643 0.0134	

附表 3. Friedman-Ball-Drake모델의 國際比較

(1962~79年)

國 別	$c_{t-1}/y_t$	$\Delta P/P$	$\Delta(\Delta P/P)$	$D$	$R^2$ D.W. S.E.R.
1. U. S. A.	$C/Y=0.3625$ (3.7717) +	- 0.4852 (3.2512) (-0.2020)	- 0.0324 (-1.6162)	+ 0.2312 (1.4355)	0.8124 0.8413 0.0071
2. U. K.	$C/Y=0.6444$ (6.8874) +	0.0756 (0.5438) (-1.0966)	+ 0.1125 (0.6710)	- 0.0778 (-0.9528)	0.4644 0.6522 0.0119
3. Japan	$C/Y=0.2778$ (3.9068) +	0.6962 (6.5350) (-3.9690)	+ 0.4432 (0.8411)	- 0.0881 (-2.3717)	0.9045 2.0605 0.0125
4. W. Germany	$C/Y=0.3735$ (5.0544) +	0.4277 (4.4316) (-2.2354)	- 0.3118 (-0.9907)	- 0.1981 (-0.0106)	0.8163 2.2247 0.0057
5. Canada	$C/Y=0.2743$ (3.7899) +	0.6344 (6.0063) (-2.3470)	+ 0.2437 (0.1964)	- 0.0313 (-0.7256)	0.9327 1.1282 0.0077
6. France	$C/Y=0.5893$ (13.3254) +	0.1203 (1.7069) + 0.2862 (2.4734)	- 0.3317 (-2.7961)	- 0.0113 (-1.9713)	0.5867 1.9081 0.0072
7. Australia	$C/Y=0.4429$ (9.3916) +	0.3153 (4.1083) + 0.0536 (0.6752)	- 0.2463 (-2.3100)	- 0.0118 (-1.8463)	0.7096 1.3436 0.0082
8. Brazil	$C/Y=0.6383$ (1.9283) +	1.1901 (0.3562) (-0.6888)	- 0.1707 (-0.1934)	- 0.0569 (-0.9222)	0.0980 1.2850 0.0679
9. Philippines	$C/Y=0.3004$ (4.6288) +	0.6692 (8.9135) (-0.0920)	- 0.0090 (-0.3767)	- 0.0246 (-3.1453)	0.9737 2.4555 0.0128
10. Taiwan	$C/Y=0.0039$ (0.2796) +	1.0555 (41.6769) (-3.1465)	- 0.3191 (0.9789)	+ 0.0704 (1.5575)	0.9930 2.2141 0.0197

附表 4. Evans모델의 國際比較

國 別	$\Delta y/y$	$(c/y)_{t-1}$	$\Delta P/P$	$A(JP/P)$	D	$R^2$	D.W.	S.E.R.
1. U. S. A.	$C/Y=4.6030 + 3.0246 - 6.1594 + 6.1468 - 6.0237 + 0.0109$ (2.3779) (2.6445) (-2.2057) (2.9396) (-2.7465) (0.0909)					0.6436	1.2234	0.1164
2. U. K.	$C/Y=0.1046 - 0.0738 + 0.8520 - 0.0956 + 0.0236 + 0.0046$ (0.6454) (-1.1015) (3.6355) (-1.3190) (0.2810) (0.6000)					0.7498	2.1955	0.0085
3. Japan	$C/Y=0.2206 - 0.4482 + 0.7676 - 0.3818 + 0.0442 - 0.0149$ (2.5876) (-6.1299) (6.2990) (-3.0748) (0.4116) (-1.9803)					0.9161	2.2490	0.0132
4. W. Germany	$C/Y=0.3841 - 0.2682 + 0.4112 - 0.3245 - 0.1888 + 0.0001$ (2.2015) (-3.2481) (1.4961) (-1.3090) (-0.8971) (0.0249)					0.8172	2.2180	0.0060
5. Canada	$C/Y=0.1965 - 0.3271 + 0.7335 - 0.1351 - 0.0517 - 0.0023$ (2.2766) (-3.6918) (6.0924) (-1.1483) (-0.3292) (-0.3894)					0.9409	1.5172	0.0071
6. France	$C/Y=0.4073 - 0.0589 + 0.3879 + 0.2550 - 0.2275 - 0.0091$ (2.8064) (-1.1669) (1.8049) (2.2207) (-1.6288) (-1.5619)					0.6401	2.2992	0.0070
7. Australia	$C/Y=0.2409 - 0.1206 + 0.6229 + 0.0705 - 0.1739 - 0.0056$ (2.6139) (-2.2291) (4.3855) (1.0554) (-1.8676) (-0.9535)					0.8141	2.4908	0.0068
8. Brazil	$C/Y=1.1896 - 0.3144 - 0.5735 - 0.1565 - 0.0582 - 0.0350$ (1.8069) (-0.7320) (-0.6053) (-0.6301) (-0.1967) (-0.8999)					0.1583	1.4031	0.0683
9. Philippines	$C/Y=0.2498 - 0.4526 + 0.7262 - 0.0094 - 0.0207 - 0.0356$ (3.9182) (-6.0254) (10.0463) (-0.1134) (-0.3845) (-3.3513)					0.9839	2.3902	0.0105
10. Taiwan	$C/Y=-0.0589 + 2.9599 + 0.5967 + 3.2246 - 1.2079 - 0.1172$ (-0.5305) (2.9733) (2.6915) (3.0479) (-2.3605) (-1.4689)					0.7854	2.5153	0.1135